

호남 가야고분군 최초 철 다루던 도구 출토

장수 계남 호덕리 백화산 고분군 발굴조사

'단야구', 8호분 매장주체부에서 발견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과 연관성 높여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백화산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철을 다루던 '단야구(鐵冶具, 철기의 제작에 있어 단조기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망치, 집게, 모루 등의 도구)'가 출토됐다.

특히 이번 출토된 단야구는 호남지방의 가야 고분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군은 오는 28일 장수 백화산 고분군 8·9·64호분' 발굴 현장을 공개한다.

24일 장수군에 따르면 백화산 고분군은 백화산(白華山: 850.9m)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여러 갈래의 지류 중 장계면 소재지까지 뻗은 지류의 끝자락에 자리하며, 지류의 정상부와 돌출부에 일정간격을 두고 고층이 분포돼 있다.

군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재)전북문화재연구원과 가야고 고분이 밀집한 곳에 자리한 장수 백화산 고분군의 성격과 발굴하고 보존·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정밀발굴조사를 추진 중이다.

8호분(8·9호분)은 대부분 파괴되어 축조방법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봉분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8호분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남아있는 봉분을 기준으로 남·북 1,090cm, 동·서 1,080cm, 높이 260cm이다. 8호분의 축조방법은 매장주체부인 주석곽을 축조하고 1

차적으로 석곽위에 성토를 한 후 최종적으로 봉분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8·9호분의 매장주체부는 구덩식돌덧널무덤(수혈식석곽, 竪穴式石槨)으로 규모는 잔존길이 360cm, 너비 70~81cm, 높이 105~110cm내외이다. 8호분의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소형 돌덧널무덤(석곽묘, 石槨墓) 4기와 돌무덤(옹관묘, 甕棺墓) 1기, 널무덤(토광묘, 土槨墓) 1기 등의 부곽이 확인됐다.

8·9호분의 매장주체부에서는 짧은목항아리(단경호, 短頸壺)와 접시(배, 杯), 기린비키(방추차, 紡錘車) 등의 토제품과 단야구(鐵冶具), 쇠낫(철검, 鐵劍), 단조쇠도끼(단조철부, 鐵造



철을 다루던 도구인 '단야구'가 출토된 장수 백화산 고분군 발굴 현장 내부.

鐵斧), 쇠로 만든 화살촉(철촉, 鐵鏃) 등의 철제품, 고리자투칼편(환두대도편, 環頭大刀片) 등이 출토됐다.

8호분 매장주체부 주변의 부곽에서는 소형의 뚜껑이 있는 긴목항아리(유개장경호, 有蓋長頸壺), 입이 큰 항아리(광구호, 廣口壺), 구슬(옥, 玉) 등이 발견됐다.

특히 8호분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된 단야구는 장수지역의 가야고분을 넘어 호남지방의 가야

고분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8호분에서 출토된 단야구는 망치와 집게, 모루로 실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타격흔적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볼 때 피장자는 장수지역 철기제작을 담당했던 수장층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야구의 확인은 장수를 비롯한 전북 동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제철유적과의 연관성을 더욱 높였다.

64호분으로 추정되는 고분은 2020년 7월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m에 가까운 성토층과 돌무지시설(적석시설, 積石施設)을 확인했다.

성토(盛土, 성질이 다른 흙을 서로 번갈아가며 쌓아올리는 기술)층에서는 가야토기편이 확인됐다.

오는 28일 10시 30분 현장에서는 장수군과 (재)전북문화재연구원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8·9·64호분에서 확인된 고분과 유물 등과 관련한 학술지문회의 열고 현장 설명회를 갖는다.

장수=고판호 기자

과 돌무지시설(적석시설, 積石施設)을 확인했다. 성토(盛土, 성질이 다른 흙을 서로 번갈아가며 쌓아올리는 기술)층에서는 가야토기편이 확인됐다.

오는 28일 10시 30분 현장에서는 장수군과 (재)전북문화재연구원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8·9·64호분에서 확인된 고분과 유물 등과 관련한 학술지문회의 열고 현장 설명회를 갖는다.

장수=고판호 기자

'만경강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

내일 온라인 행사로 열려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임석주)가 2020 문화가 있는 날 '만경강 그 강에 오면' 사업 중 '만경강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을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연다.

만경강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만날 수 있다. 만경강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은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부대행사인 만경강 역사, 문화, 생태 도보여행이 진행된다.

만경강을 따라 하리교부터 비비정을 경유하여 삼례문화예술촌까지 걸으며, 만경강 해설사를 통해 만경강의 다양한 생태이야기와 일제수탈의 역사 현장을 보고 듣고 체험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사전 참가자를 모집했다.

손안나 만경강사랑지킴이 총무는 "발열체크 및 간단한 진단검사를 하며 해설사 1명에 8명씩 6회에 걸쳐 20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출발시키는 등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5시부터는 '만경강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 본 행사가 진행된다. 프로그램으로는 비비무 특별공연(무예), 만경강 교류예술제, 합창, 합춤, 비비정 저녁노을 페스타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만경강이 흐르는 완주군, 익산시, 군산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장르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가 출연하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공연팀 소울헌터즈, 루스빅밴드가 초청돼 공연을 펼친다.

행사는 관람객 없이 진행되며 행사 참여자들은 온도체크, 방문자 명부작성, 손 소독 등 생활위생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히 진행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백중날 둔데기마을 축제, 주민창작시·사진 전시회로

임실군, 오수둔데기 술매이 축제 코로나19로 야외전시장서 비대면 진행

임실군은 전통세시 풍속인 백중날(음력 7월 15일)을 맞아 농림축산식품 공모사업인 '오수둔데기 백중술매이 축제'를 사회적 거리두기 형 마을전시회 등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군은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오수둔데기 백중술매이 축제를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해 기존 프로그램을 대부분 취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따뜻한 마을전시회로 열었다.

특히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 19와 관련된 별도의 농촌마을 축제 지침에 의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군과 둔데기마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예년과 같은 축제를 대신하여 코로나19로 지친 마을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비대면 형태로 진행됐다.

해마다 백중날 마을주민들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실시했던 기놀이와 마을주민의 화합을 위한 대동놀이 한마당 및 시낭송 대회는 코

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 대신 야외전시장을 마련해 주민창작시 및 사진 등을 전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뤄졌다.

특히 그간의 농사일과 시름을 하투라도 잊고 함께 어울려 서로를 위로하고자 추진했던 술매이 행사도 백중둔데기 행사구름(도시락, 코로나19 방역키트 등)로 대체, 직접 가정마다 배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위원회에서는 구름미를 직접 배달하며 마을주민에게 안부를 묻으며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주고받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 폭염, 장마 그리고 태풍 등으로 모두의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에 비대면으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진행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을주민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군산 문화재 활용사업 국·도비 5억5000만원 확보

야행·향교활용·전통산사재활용 지역문화유산교육 등 6개 선정

군산시가 문화재 활용사업과 관련해 국·도비 5억5,000만원을 지원받으며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는 각 지역이 보유한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역사교육의 장과 고유문화의 계승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2021년 문화재 활용사업 중 5개 분야 6개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5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공모신청을 통해 '문화재 야행사업, 생생문화재사업,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이 선정됐다. 문화재 야행사업은 문화재와 그 주변의 문



화시설을 야간에 개방하고, 문화재를 연계하는 야간프로그램을 실시해 문화재를 통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군산문화재 야행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에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행사운영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생생문화재사업은 잡자고 있는 문화재를 깨워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

텐츠로 새롭게 만들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우리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사업(8년 연속)과 신규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은 향교 및 서원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교육, 체험, 문화 프로그램이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전통문화의 숨결을 담고 있는 임피향교가 7년 연속 선정됐다.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은 동국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국사, 우리나라의 사찰이 되었다'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교육자원으로 삼아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사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군산=한경봉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완주사랑상품권

생활비는 10% 절약, 이웃사랑은 100% 증만

완주사랑상품권 10%할인판매 (~2020. 12. 31.까지)